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음 4월 7일) 제20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연기금 ·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으로

전북도, 금융타운 개발계획 수립 보고회

전북금융센터 건립
70개 이상 기관 유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3대 목표 설정 추진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농생명 금융거점'으로 특화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

전북도는 1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금융기관 및 개발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센터와 지원시설의 인프라 조성방안, 금융기관 유치방안,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용역을 수행한 (주)YJC컨설팅은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비전을 '연기금 ·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으로 삼아 전북금융센터 건립, 70개 이상 금융기관 유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3대 목표 설정과 함께 18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전북 금융센터는 국내 · 외 금융기관 회의 · 사무, 홍보 · 전시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2,300억원 정도의 규모다.

금융센터는 전북도 직접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사업추진 속도, 위험 및 책임분산, 사업의 공공성 측면을 검토해, 향후 건립방식을 선택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과제를 지난해 9월부터 수행해왔다"며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사업 등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추진, 금융기관

집적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와 관련 "연기금 ·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전북 전체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금융기관(기업)들도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일 전주시청 노승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태공 율주크스님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점등식을 갖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5.18 첫 희생자로 알려진 고 이세종 열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전북대학교 내 추모비를 찾아가 헌화했다.

“5.18 정신 역사의 명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촛불시민혁명 부활시켜 국가권력 자행한 부당행위 진실 밝혀야 하기 때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5.18을 맞아 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6.13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추모 논평을 통해 “5.18 당시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흘렸던 피와 눈물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역사의 명령”이라며 민주 열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주권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이어져 부패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시민혁명을 부활시켰다”면서 “그 촛불은 여전히 꺼

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5.18 당시 국가권력이 자행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기간 밝혀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김 예비후보는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5.18을 비롯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열사들의 명예 회복시키고, 그들에 대한 왜곡과 폄해, 논란을 부추기는 의혹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그 날까지 전주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민주 열사들의 민주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숭고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로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5.18 첫 희생자로 알려진 고 이세종 열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전북대학교 내 추모비를 찾아가 헌화했다. /기동취재반

춘향선발대회 경합... ‘미스 춘향 진’에 김진아씨

“춘향극장 만들어 연극 · 무용 많이 올려 지역을 널리 알리고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미인인 미스 춘향 진에 김진아(20)씨가 선정됐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제88회 춘향제 사정행사로 지난 17일 광한루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김진아(동아방송예술대 공연예술학과

휴학)씨가 춘향 진의 영광을 안았다.

또 선에는 중국동포 최예령(21,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 예술학원 무용학부 재학)씨가 미에는 김지혜(24, 경기도 남양주,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졸업)씨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춘향 진에는 트로피

와 소형SUV차량이, 선에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미에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 등이 전달됐다.

이번 춘향선발대회에는 430명이 참가했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32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김진아씨는 “춘향극장을 만들어 연극, 무용을 많이 올려 춘향과 남원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한국무용에 춘향과 춘향제를 접목한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석가탄신일 관계로 5월 22일자 신문 쉽니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